

국민의료복지국가 실현의 첨병 의료정보망 서비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 획기적 개선 기대—

우리나라에서는 철강·무역·관세·유통 등의 분야에서 EDI를 활용하고 있지만 의료분야에서의 EDI는 한국통신의 의료정보망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박 성 구 한국통신 사업개발단 EDI사업국

우리나라에서는 철강·무역·관세·유통 등의 분야에서 EDI를 활용하고 있지만 의료분야에서의 EDI는 한국통신의 의료정보망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국통신에서 의료정보망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은 병·의원 등에서 매월 보험진료비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보험연합회, 근로복지공단 등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곧, 청구서 작성에 따른 많은 경비지출을 절감하며, 심사기관에서는 자동심사제의 도입으로 인력 및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의료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료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험환자 진료비 관련업무 처리 시스템

의료정보망(Medical EDI Network) 서비스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과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의 심사기관간에 발생하는 보험환자 진료비의 청구·심사·지급에 따른 업무처리과정의 문서전달이 현재의 수작업에서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첨단 정보통신망 서비스이다.

즉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보험환자의 진료후

진료비를 의료보험연합회나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현재는 일반문서나 디스켓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전자문서로 청구하게 된다.

의료보험연합회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청구서,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심사요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심사를 하던 것을 의료정보망 서비스가 제공되면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많은 내용을 자동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전자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앞서있는 해외 사례

미 국

미국은 의료정보 EDI 서비스를 일찍이 지난 1989년부터 도입하여 정산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 진료비 지급 통보서 등 전자서식 36종을 EDI로 처리하여 의료업무의 신속·정확성을 기하여 의료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부터 의료 E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진료비 이의심사 청구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통보서 등 전자서식 40종을 EDI로 처리하고 있다.

싱가폴

싱가폴에서는 지난 91년부터 의료 EDI 서비스인 MediNet 서비스를 SNS(Singapore Network Services)사에서 제공하여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료 EDI가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진료비 청구서, 명세서, 심사결과내역 통보서 등 전자서식 34종을 EDI로 처리하고 있다.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의료사업의 대외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의 EDI를 속속 도입하여 의료업무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부터 본격착수되는 의료정보망 사업

추진경위

의료정보망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타당성조사를 지난 93. 8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94. 1. 13 의료정보망(MEDI-NET) 사업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총무처,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여 '94. 2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연합회 등과 의료정보망 사업 추진방향을 협의한 결과 의료정보망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94. 5. 14 의료보험 EDI시범사업을 의료보험연합회와 한국통신이 공동추진키로 합의하였고, 94. 7. 1 근로복지공단의 개발 요청에 의해 산재보험 EDI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병·의원 응용 SW개발을 지원할 협력개발업체로 대명·메디슨·비트컴퓨터·전능컴퓨터 등 14개 SW업체를 11.3 선정하였고, 12.30 의료정보망 중계시스템을 서울정보통신운용국에 2식을, 심사시스템은 의료보험연합회와 근로복지공사에 각 1식을, 이용자시스템은 권오주 의원 등 10개 의원에 PC와 모뎀을 설치하여 HW 구축을 완료함과 동시에 의료

정보망 시험서비스 SW개발도 완료하여 올해 2. 23 의료정보망 시험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였다.

전자문서 내용

병·의원 등 요양기관과 의료보험연합회, 근로복지공단 등 심사기관간에 발생하는 진료비 청구, 접수, 심사, 지급의 전체 과정에서 주고 받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서를 표준화하여야 하며, 한국통신의 의료정보망 서비스에서 표준화하게 되는 서비스 단계별 전자문서 내용은 <표 1>과 같다.

세부분으로 구성되는 시스템

의료정보망 시스템은 중계시스템, 심사시스템, 이용자시스템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째, 중계시스템은 한국통신 데이터사업본부 정보통신운용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변환 처리하고 자료를 축적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두번째, 심사시스템은 의료보험연합회와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신된 전자문서를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심사하고 이의가 있는 최소한의 물량을 화면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며, 금융기관에 진료비 지급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세번째, 이용자 시스템은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 청구, 수입·재료약 신고서, 이의신청 등을 심사기관에 컴퓨터 등 전산기를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도입 효과 큰 사업

업무처리시간의 단축

요양기관이 의료보험연합회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관에 진료비의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업무처리 기간이 현재는 40일~60일 소요된다.

그러나 의료정보망이 도입되면 20일내에 처리가

〈표 1〉 의료정보망 단계별 서비스 내용

구 분	시험서비스(4종)	시험서비스(31종)	상용서비스(34종)
전 자 서 식 내 용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명세서 접수증 진료비심사결과통보서 등 의료보험 관련 전자서식 4종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명세서 접수증,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 보험자별 심사결과 통보서 의료보호 심사결과 통보서 의료보호 총괄 심사결과 통보서 진료비 지급 통보서, 이의 신청서 연도 진료비 지급내역 통보서 정산진료비 재청구 의뢰서 정산진료비 재청구 처리 내역서 정산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 초진 중복 정산 심사내역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내역서 정산진료비 지급 통보서 구입신고서, 조제·제제약신고서 구입신고 관련사항 안내서 구입신고 보완자료 구입신고서 등 의료보험 전자서식 21종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명세서 접수증(반송증) 진료비 지불결정 통지서 진료비 심사결정 통지서 진료비 이의 심사 청구서 조제, 제제약 신고서 구입신고사항 안내서 구입신고 보완자료 구입신고서 등 산재보험서식 10종	시험서비스 31종 추가 산재보험 3종 - 요양신청서 - 요양신청 접수 확인증 - 요양 승인결정 통지서

되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신속한 자금회전에 의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합회 등 심사기관은 자동 전자심사에 의한 업무처리가 간소화 된다.

업무처리비용의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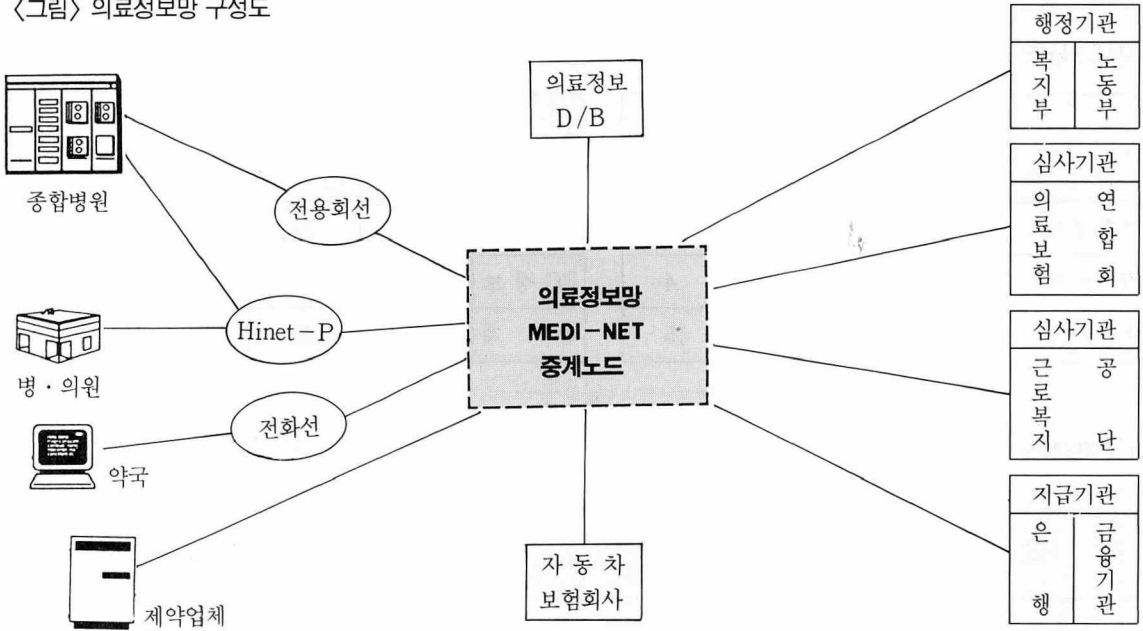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자료입력, 자료우송, 각종 전표, 기타 증빙자료 등의 작성과 우송에 따른 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의료보험연합회는 자동 전자심사에 따른 심사인력 절감과 자료 재입력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물리적 전달(FAX, 우편, 인편, 차량)에 따른 교통·통신 트래픽의 유발을 억제하게 되고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 문서가 필요없게 되어 종이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의료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

의료정보망을 활용하여 가입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응용할 수 있고, 신속·정확한 가입자 관리가 이루어지며, 약품정보, 수가정보, 약가정보, 진료재료정보, 보건통계정보, 개인병력정보 등 각종 의료정보

<그림> 의료정보망 구성도



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서류상의 오류방지 및 신뢰성 향상

의료보험연합회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관은 진료비의 청구·명세서의 재입력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마다 고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의료분야의 정보화 촉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져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전국 5만여 요양기관 및 의료관련 기관이 정보마인드 확산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복지망 구축을 보다 앞당겨 의료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97년까지 본격 의료EDI서비스

의료정보망 시범서비스는 10개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명세서, 접수증, 심사결과 통보서

등 전자서식 4종에 대하여 오는 8월까지 제공한다.

의료정보망 시범서비스는 서울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외 1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4종과 진료비 이의 신청서 등 의료보험 관련 추가 전자서식 17종, 산재보험관련 추가 전자서식 10종 등 총 31종의 전자서식에 대하여 올해 9월부터 96년 2월까지 제공한다.

의료정보망 상용서비스는 전국의 병원급과 수도권 의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전자서식 31종과 요양신청서 등 산재보험 관련추가 전자서식 3종을 더하여 총 34종의 전자서식에 대하여 96년 12월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오는 97년부터는 전국의 5만여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의료정보망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의료 EDI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험가입자 정보, 약가정보, 수가정보, 약품정보, 병력정보 등 의료관련 정보의 DB를 구축하게 되면 국내 의료정보의 신속한 입수가 가능하고 해외 의료정보망과도 연결하여 국내 의료업체가 선진 의료기술과 정보를 즉시 활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